

大學附設研究所의 活性化 方向

金 裕 赫
(檀國大 法政大學長)

I. 研究所에 대한 期待

研究所는 어떠한 形態로 存在하든 간에 그 機能을 통하여 產出되는 價値에 대해서는 일응 社會的인 關心이 쏠리게 마련이다. 왜냐하면 研究所는 專門性을 띠면서도 複數研究陣容에 의하여 研究된 結果를 그 產物로 하기 때문이다.

社會的 機能이 高度로 分化되어 감에 따라 學問의 領域도 細分化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어떠한 分野의 學問도 細分化된 그 自體의 獨自的인 領域의 것만으로서 滿足할 수는 없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하면 研究需要課題로 提起되는 것 중에 특히 人文 및 社會科學分野의 問題는 學際間的 緊密한 協力を 要求하고 있다. 研究所에 대한 社會的인 期待는 바로 여기에서 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各 大學마다 設置하고 있는 研究所의 實態를 보면 어떤 것은 法人化하여 거의 獨立採算方式에 의한 運營을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것은 附設研究所로서 大學의 支援에 의하여 運營되고 있는 곳도 있다.

勿論 그 運營規模上的 差異라든가, 運營方法에 대한 差異點 등은 多角的인 면에서 發見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大學附設研究所가 지니는 하나의 共通된 特徵이 있다면 그것은 零細運營狀

態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研究所의 運營不實은 곧 研究의 貧弱性을 反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도 좋을 것이다.

研究所가 왜 어려운 境地에서 헤어날 수 없고 있느냐에 관해서는, 보는 사람의 視角이 다를 수는 없지만 一般的으로 研究所에 대한 觀이 뚜렷이 確立되어 있지 않다는데 있는 것으로 理解된다.

바꾸어서 말하면 研究所에 대하여 거는 期待의 水準만큼, 研究所에 대한 關心度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데 問題가 있다 하겠다.

研究所는 그 專門研究分野가 어떠한 것이 되었던 간에 研究所라는 機構의 組織과 機關의 運營을 위해서 存在하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社會的으로 보다 深度있고 專門的으로 活用될 수 있는 社會機關의 性格을 띠고 存在한다는 데 그 本質的인 設置意義가 있기 때문에 研究所에 대한 社會的 期待는 커가는 것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면에서의 期待와 關心이 커 갈 때 그 社會는 活氣를 돋우어 갈 수 있고 研究所는 계구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II. 研究所의 몇가지 問題點

그러나 어느 研究所를 莫論하고 저나름의 고 민과 隘路가 있다는 것은 능히 皮膚로 느낄 수 있다. 그 問題點의 類型을 몇가지로 나누어 보

면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다.

첫째는 形式的으로 存在하는 類型的 研究所가 지니는 問題點이다.

어느 大學의 경우를 莫論하고 그 紹介要覽을 펼쳐 보면 大學附屬機關 및 附設研究機關이 눈부시게 羅列되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얼핏 보면 組織部署와 定款 등 거의 완벽할만큼 形式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電話 또는 晤面을 통하여 生産資料 등을 要請해 보면 實際事務室은 고사하고 所員 하나 없는 경우가 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要覽에만 存在할 뿐, 단 한가지의 研究物마저도 없는 곳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것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大學의 體面上 研究所는 두어야 한다는 데서 그런 식으로 紹介되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런 類型的 研究所는 實社會로부터 提起되는 要請에 대하여 應答할 수 있는 能力이 源泉의으로 缺乏되어 있다 해도 그릇된 表現은 아닐 것으로 본다.

둘째는 大學依存型的 無氣力한 研究所가 지니는 問題點이다.

研究所의 具備要件은 갖추고 있으면서도 研究課題를 다루지 아니하는 類型的 研究所가 바로 이에 屬한다. 다시 말하면 研究所 自體가 일거리를 찾아내서 課題를 處理해 가는 것이 아니라 大學當局의 豫算支援이 없기 때문에 다만 機關運營만을 위하여 開店休業하는 形態의 研究所가 比較的 많이 있다.

冷靜히 따지고 보면 그 多樣多岐한 많은 研究所에 대하여 研究課題와 더불어 研究經費까지 支援하기란 事實上 期待하기 어려운 일이다. 다만 研究所運營에 따르는 最少限의 經費를 配定해 주면 그 바탕 위에서 自體의 研究課題를 實社會 속에서 찾아내야 한다. 모든 것을 大學에 依存하여 그 研究所의 機能이 大學의 一方的인 配慮에 의해서만 發揮될 수 있는 지경이라면 그 같은 研究所는 이미 自活能力을 잃었다 해도 過言이 아니다.

세째는 對富依存型的 研究所가 지니는 問題點이다. 文敎部 등 關係當局의 政策的인 考慮에 의하여 一定額의 研究費支援(學術助成費의 一環)이 있으면 이른바 研究活動을 하고 그 支援이 없

으면 研究活動을 休息하는 方式으로 運用되어가고 있는 研究所의 경우도 注意깊게 살펴 봐야 할 問題가 아닌가 생각된다.

一般的인 경우 研究助成費는 研究所라는 機關名稱으로 支援된다고 보다는 申請人에게 支給되는 形態로 配定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研究所는 다만 名義上 사용되는 虛像에 不過할 수도 있다.

이 말은 단순히 老婆心에서 하는 말만은 아니다. 研究所와 研究陣이 密着되어 一體性を 維持하지 못하고 있을 때, 問題點으로 指摘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네째는 研究所 設置勸奨當局의 無關心으로부터 提起되는 問題點이다.

研究所는 社會的 要請如何에 따라서 그 設置問題가 決定된다. 어떤 사람은 學問의 專門化가 研究所를 생겨나게 했다는 뜻에서 專攻의 產物이라고도 하지만 大學에서의 專攻學科도 따지고 보면 社會的 要請과 必要에 의해서 생겨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大學附設研究所는 直接的인든 間接的인든 社會로부터의 要請에 대하여 보다 的確한 解答을 주기 위한 責任을 져야 할 것이다.

大學附設研究所는 分明히 말해서 그 所屬大學과 無關한 獨自의인 機關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大學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機能的인 一部分을 分擔하고 있는 文字 그대로 附設機關인 것이다.

大學을 염두에 두지 않는 研究所가 存在할 수 없듯이 研究所를 放棄한 채 大學의 完全性を 想定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어떤 形態의 研究所이든 일단 大學의 決心에 의하여 開設 되었다면 그 研究所運營에 관해서는 關心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一部大學에서는, 研究所는 社會 各分野로부터 用役을 받아내서 運營되는 것인양, 一方的인 생각만을 가지고 研究所를 關心 밖으로 제쳐 놓는 경우가 있다 하여 不滿을 表示하는 教授들도 많다. 研究所는 일단 設置되면 그것이 어떠한 經緯에 의해서 開設되었던 간에 自大學의 研究所일 뿐만 아니라 學則에 根據해서 存續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의 事實로 認定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要請과 不滿은 특히 私立

大學의 경우 많다는 것으로 들려오고 있다.

以上の 몇가지 점에서 研究所가 지니는 問題點을 檢討해 보았을 때 우리는 最少限 다음 몇가지 觀點에서 研究所觀을 새롭게 할 必要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는 社會의 어느 部分이 되었던 간에 多角的이며 綜合的으로 診斷되어야 할 必要性이 높아 가고 있다는 것은 研究所의 機能이 活性化되어야 한다는 뜻을 理解해야 한다.

둘째는 研究의 價値比重이 큰 것일수록 學際間의 協同 내지는 聯合이 잘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研究所에 대한 評價를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세째는 單獨研究보다는 共同研究의 結果가 本質接近面에서 보다 큰 成果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研究所經營面에서 再考해야 할 것이다.

Ⅲ. 새마을研究所에 대한 是非論

全國 各大學의 附設研究所의 하나로 設置되어 있는 새마을研究所에 관하여 그 是非論의 一端을 指摘하면 다음과 같다.

새마을研究所는 1976年 後半부터 設置하기 시작하여 1977年度初에 이르러서는 30餘個 大學에서 開設을 보게 되었다. 그러던 것이 10.26事態以後인 1981年度부터는 또다시 늘기 시작하여 現在에는 60個所를 上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開設準備中인 大學도 相當數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돌이켜보면 새마을研究所는 이른바, 自律化의 물결에 휘말려 새마을研究教授에 대한 御用論爭과 더불어 酷毒한 試鍊을 겪기도 했었다.

그러나 大學새마을研究所는 約束이라도 했었다는 듯이, 研究所看板이 本意아니게 떼어지고 부서지고 있는 불란이 거듭되기도 하였지만 御用論 앞에 굴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健在하고 있다. 이제는 굳은 땅에 물이 피었다는 뜻이 一般的인 認識基盤이 거의 肯定的인 側面에서 다져졌다고 볼 수 있는 段階에까지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問題點으로 提起되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곧 大學當局에서 關心 밖으로 밀어 제쳐 놓은 채 마치 政府(文敎部)의 直

轄(?) 研究所인 양 認識하고 있다는 점이다.

國公立大學의 경우에는 豫算編成할 때부터 새마을研究所의 豫算項目이 들어 있어서 2,3年前부터 그런대로 運營上 큰 陰路없이 研究活動을 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私立大學의 경우에는 그 나름대로의 活氣를 띠고 있는 7, 8個 大學을 除外하고서는 大部分이 豫算無配定狀態下에서 看板만을 유지하고 있는 實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솔직히 말해서 새마을研究所의 設置는 勸獎에 의한 것이었지 強要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지금이라도 새마을研究所를 解體할 수도 있는가 하면 新設할 수도 있다.

이미 言及했듯이 81年度 以後 自生的으로 開設된 새마을研究所의 數만도 30個를 上廻한다.

새마을運動이 지니는 그 意義를 吟味해 볼 때 社會發展史上 크나큰 容與를 했을 뿐만 아니라 國際的으로도 近代化過程에 있어서 베놓을 수 없는 새로운 「모델」로 널리 認定되고 있다는 것을 否定할 수 없다.

社會의 近代化라는 것은 통나무가 갈려가는 形態로 一律的으로 成就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 가닥의 溪谷의 물이 저나름의 물줄기를 따라 江이나 바다에 이르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先進社會(國家)의 경우에도 우리보다 뒤진 部門이 있는가 하면, 中進國인 우리의 경우 先進社會보다 앞서고 있는 部門이 또한 있는 것이다.

새마을運動은 分明히 住民參與型的인 農村近代化面에 있어서는 어느 나라에 比較해도 뒤지지 않는다는 特長의 一面을 지니고 있다.

그와 같은 새마을運動이 오늘날 國際化段階에 進入되고 있다는 것은 그 槓型이 앞서 있음을 뜻하는 立證이기도 한 것이다. 새마을運動의 國際化는 運動 그 自體가 지니는 經驗만을 가지고서 이루어질 수는 없다. 어디까지나 國際的인 說得力이 있어야 한다. 說得力의 武器는 研究하고 整理된 學術的인 理論體系가 事實을 뒷받침할 수 있을 때 發見되는 것이다.

大學附設 새마을研究所의 開設 및 存續의 意味는 바로 여기에 있다. 특히 새마을研究所에 대한 所屬大學의 豫算配定面에서의 考慮는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며 그래야만 大學의 本質的

인奉仕機能이 더욱 뜻있게 發顯되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Ⅳ. 研究所의 活性化方向

研究所가 어떠한 形態로 存繼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學問世界가 지니는 性格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學問이 分化와 統合의 妙味를 살려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研究所의 社會的인 位置가 어떻게 定義되고 있느냐에 관한 問題인가 하면, 學問과 産業이 連動的인 共存關係를 지니고 있느냐 하는 것은 研究所와 産業社會가 어떤 方式으로 密着되고 있느냐 하는 側面에서 尺度된다.

前者는 研究所의 機能을 바탕으로 하는 學際間的 協同研究風土를 뜻하는 것이며, 後者는 產學協同의 기틀이 어떻게 形成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뜻한다.

이 兩者의 意味가 同時에 受容될 수 있기 위해서는 첫째, 研究所에 대한 本質的인 理解方法이 바뀌어야 하고, 둘째는 研究所가 研究所 自體에 의하여 課題를 찾아내는 것도 重要하지만 더욱 重視해야 할 것은 研究所는 社會的 要請을 바탕으로 하여 活用되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어디까지나 研究所는 專門的으로 活用될 수 있고 또한 開放的으로 評價될 수 있어야 한다.

一例를 든다면 世界에서 가장 많은 研究物(研究發表, 叢誌出刊 등)을 내고 있다는 日本의 경우를 보면 各種 學會 및 研究所 등에서 生産되는 研究內容을 거의 제 3者의인 立場에서 獨自的으로 蒐集評價하고 그 評價結果에 따라 研究助成支援을 하는 制度를 두고 있다. 그 制度의 主管機關은 文部省內에 所屬되어 있다. 또 한가지 關心을 끄는 것은 일단 相當水準에서 評價되었다면 그 支援施策은 關係學會 및 研究所가 현저한 缺格條件을 드러내지 않는 한 持續的으로 支援되고 있다는 점이다.

研究活動은 單年作農產物과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先行研究는 그것대로 意味를 지니면서 後續研究를 誘發케 하는가 하면 그 研

究의 結果는 時系列的으로 蓄積되어 하나의 學問體系를 形成하게 된다.

教育을 가리켜 百年大計라고 한다면 그 教育을 深化시키고 發展시켜 가는데 源泉的으로 寄與하는 研究助長政策도 同一한 뜻으로 吟味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뜻에서 研究所의 活氣助長問題는 다음 몇가지 점에서 考慮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첫째는 專攻分野와 研究所와의 關係는 날이 갈수록 密着되어야 할 것인 바, 專攻學科群의 보다 深度있는 研究風土의 成熟化를 위한 施策面에서의 研究所機能助長方案이 講究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研究所가 지니는 社會的 機能을 바탕으로 하여 理論과 事實의 配合度を 높여가는 이른바 實學的인 產學協同의 學問社會的 體質을 改善시켜 가는 方案이 摸索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세째는 研究所와 研究者(教授, 研究員, 學生 등)와의 結合意識을 바탕으로 하는 研究機關像을 定立해 갈 수 있는 雰圍氣造成方案을 찾아내야 한다는 점이다.

네째는 大學의 體面과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라는 식의 從來의 形式的인 研究所觀(一部的 現象이지만)을 一新하고 大學의 形便과 實情에 맞는 大學의 次元에서의 研究所育成策을 마련하여 研究所에 의한 研究結果를 가지고 大學의 風土를 評價하는 尺度로 삼을 수 있게끔 大學當局에서는 考慮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研究所는 開放的인 자세에서 自體의 研究內容을 專門分野의 領域社會 또는 必要部門에 提供活用케 함으로써 循環成長論的인 環流效果가 나타날 수 있게 되도록 自體刷新의 기틀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는 産業社會로부터의 利用要求도가 높아져 갈 수 있도록 研究所의 社會的 地位向上方案 등을 講究하여 國際的 競爭力의 基礎를 教育과 研究하는 側面에서 더욱 굳게 다져 갈 수 있도록 하는 길도 다듬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例示하면서 主題에 대한 意見披瀝을 여기에서 매듭질까 한다. *